



2019년 7월 31일

국외출장 보고

국외출장 보고서

1. 출장 개요

- 출장명 :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, 해외도시 벤치마킹 및 세종시 홍보를 위한 국외출장
- 출장자 : 세종시 6명, 세종시의회 2명, 대전세종연구원 1명

소속	직위	성명
세종시청	시장	이 춘 희
세종시청	건설교통국장	정 채 교
세종시청	대외협력담당	오 의 택
세종시청	별정 6급	김 지 훈
세종시청	주무관	이 성 용
세종시청	주무관	하 창 호
세종시의회	부위원장	안 찬 영
세종시의회	주무관	정 용 운
대전세종연구원	연구위원	김 성 표

○ 출장 목적

-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(APCS)에 참석하여 세종시의 혁신 사례 홍보, 세계 도시들의 혁신사례 벤치마킹
-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(APCS) 운영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세계행정도시포럼(WACA)에 접목
- 브리즈번(호주)의 경제산업 분야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접목 방안 모색
-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행정도시연합 참여 요청
- 웰링턴의 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접목 방안 모색

○ 출장 기간 : 7월 6일부터 13일까지(6박 8일)

○ 출장 국가 및 도시 : 호주(브리즈번), 뉴질랜드(웰링턴, 오클랜드)

○ 출장 일정

월일 (요일)	도시	업무수행내용	비고 (접촉예정인물, 직책포함)
7월 6일 (토)	브리즈번	▶ 이동(인천→브리즈번) - 인천(20:05)→브리즈번(06:50+1일) / 9h 45m - 대한항공 KE123	
7월 7일 (일)	브리즈번	▶ 도착 ▶ 오전 / 보타닉가든-마운트쿠사, 잇스트리트마켓 ▶ 오후 / 호텔 체크인 후 시장님 사례발표 준비 ▶ 17:30 /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환영리셉션	
7월 8일 (월)	브리즈번	▶ 오전 / 시장님 사례발표 【Innovation of Cities(도시의 혁신성) 세션】 ▶ 오후 / 사우스뱅크, 파워하우스 브리즈번, GOMA ▶ 저녁 / APCS 만찬(브리즈번 시청)	
7월 9일 (화)	브리즈번, 웰링턴	▶ 오전 / 시장님 인터뷰 및 세종시 홍보 ▶ 오후 / 론 파인 코알라 보호구역 시찰 ▶ 이동(브리즈번→웰링턴) - 브리즈번(19:00)→웰링턴(00:25+1일) / 3h 25m - 버진오스트레일리아 VA107	
7월 10일 (수)	웰링턴	▶ 오전 / LGNZ* 최고경영자 면담 * Local Government New Zealand : 뉴질랜드 시장과 정치리더들의 모임 ▶ 오후 / 웰링턴 시장 면담, GWRC* 의장 면담 * Great Wellington Regional Council : 웰링턴과 그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웰링턴 지방 자치구 의회 ▶ 저녁 / 주뉴질랜드 한국대사 만찬	Malcolm Alexander(뉴질랜드 지방정부협의회 최고경영자) Justin Lester(웰링턴 시장) Chris Laidlaw(웰링턴 지역의회 의장)
7월 11일 (목)	웰링턴	▶ 오전 / 웰링턴 첨단산업 시찰 ▶ 오후 / 테파파 박물관, 국립전쟁기념관, 보타닉 가든 시찰	
7월 12일 (금)	웰링턴, 오클랜드	▶ 이동(웰링턴→오클랜드) - 웰링턴(09:45) → 오클랜드(10:50) / 1h 5m - 에어뉴질랜드 NZ416 ▶ 오후 / 멜리사 리(이지연) 뉴질랜드 국회의원 면담, 에덴동산 시찰	Melissa LEE (뉴질랜드 국회의원)
7월 13일 (토)	오클랜드, 인천	▶ 이동(오클랜드→인천) - 오클랜드(10:15) → 인천(19:35) / 12h 20m - 대한항공 KE130	

2. 세부 내용

1) 브리즈번

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(APCS)

- 비즈니스와 혁신을 통한 도시번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140개 도시 참가
- 도시의 혁신, 도시의 지속가능성, 도시의 생활성, 도시의 이동성 4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 진행
- 넷플릭스 공동설립자 마크 랜돌프(Marc Randolph)는 기조연설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시도를 통한 혁신에 대해 강연
 - 혁신에 대한 기본적 진실
 - 혁신을 위해 실리콘밸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
 - 혁신을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
 - 혁신을 위해 탁월한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
 - 혁신에 필요한 것들
 - 실패에 대해 배우는 것
 - 혁신적 아이디어는 크지도 않고, 기발하지도 않고, 완벽하지도 않으며,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에서 출발할 수 도 있다
 - 좋은 아이디어란 무엇인가?
 -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(William Goldman)
 - 큰 프로젝트도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
 - 위험을 감수하고,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것
 -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
 - 무엇이 잘못되었는가? 당신은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가?
 - 문제를 인식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라
 - 넷플릭스의 시작
 - 비디오 대여를 우편으로 배달, DVD만을 대상으로 대여기간, 수수료 징수, 대여와 판매 중에 대여에 집중
 -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과정 필요
 - 처음에는 한 달을 주기로 하다가 2주에서 지금은 매주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도
 -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시스템이 중요
 - 가입을 통해 대여기간 제한, 대여기간 수수료 등을 없애고 추천 시스템 도입
 - 혁신을 위한 두 가지 요소: 실패에 대한 용인, 긍정적 자신감

시티스마트

- 시티스마트는 설립된 지 10년이 된 기관으로 브리즈번시에서 100% 출자하였으며 현재 15명이 근무
-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, 스마트시티를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분야
- 친환경을 위한 클린에너지 사용과 커뮤니티 연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
- 브리즈번시에 입지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들을 진행하며,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
- 시티스마트가 브리즈번시와 시민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
- 예를 들면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며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력공급망 개선 사업도 추진
-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- 크게 커뮤니케이션, 이벤트,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커뮤니케이션팀과 이벤트팀이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설문, 조사연구 등을 수행
- 시민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을 하는 동안 데이터가 수집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여, 시민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서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
- 이벤트를 통한 디지털 분야와 물리적 분야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

2) 웰링턴

웰링턴 주차서비스

- 5년 전부터 시에서 운영하고 있음
- 주차 면적은 7,000개로 3,200개는 주차미터, 3,000개는 쿠폰과 거주자 주차로 구
- 58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운영
- 주차관리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도 시행하여 주차요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

웰링턴 스마트시티

- 혁신부서에서 스마트시티 업무도 담당
- 웰링턴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도시가 4배 정도 성장하고 있으며, 작은 동산이 70개가 있다는 점
-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새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

- 또 다른 예는 디지털 도시 모델로 지리공간 시스템과 게임 엔진을 접목하여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 지역 파악 등이 가능
- 또한 건강,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용과 지진 발생 시에 핸드폰을 활용한 전력 공급, 도서관 시스템 등을 관리
- 건물정보, 가상현실 기술 등을 주택 데이터와 접목
- 중요한 점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 정보화를 통한 민주주의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
-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위원회를 통해 정보보호를 추진하고 있음. 예를 들면 카메라를 얼굴인식에 활용하지 않고 머리 위에 설치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

3) 오클랜드

오클랜드 무역관

- 뉴질랜드의 수출 중에 우리나라의 비중은 3%(약 14억 US달러), 수입은 4%(17억 NZ 달러)
-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, 자동차, 건설기계 등이며, 주요 수입품은 목재, 축산가공, 육류, 알루미늄 등
- 국내 기업 중에서는 임업, 식품, 수산업 분야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
 - 한솔, 선창산업 등 조림사업 진행
 - 오투기가 소고기 가공제품 공장 운영
 - 동원, 주원산업 등 원양선단 진출
 - 서비스업에는 대한항공과 국민은행이 진출해 있고, 삼성전자 LG전자, 현대기아차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마케팅 활동중

3. 시사점

-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규모와 참가자, 도시 발전에 대한 논의, 네트워크 형성, 도시 홍보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세종시에서의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브리즈번은 스마트시티. 지속가능한 성장, 컨벤션 등 세종시거 협력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
- 브리즈번의 파워하우스는 오래된 발전시설을 재생하여 문화와 예술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
- 사우스뱅크는 엑스포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 접근성을 높였으며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

- 시티스마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음
- LGNZ는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웰링턴이 뉴질랜드의 행정수도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IT 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음. 앞으로 세계행정도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
- 웰링턴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디지털트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세종시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
-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이며 영어권 국가로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테스트 베드로써 최적화된 시장이며, 기업 설립과 운영이 용이한 기업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미나 유럽 진출 전에 기업을 설립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시장
-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경제수도로써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무역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기업과 연계 방안 검토

참고자료

○ 주요 사진



<APCS 기초강연>



<혁신 사례 발표자>



<파워하우스 브리즈번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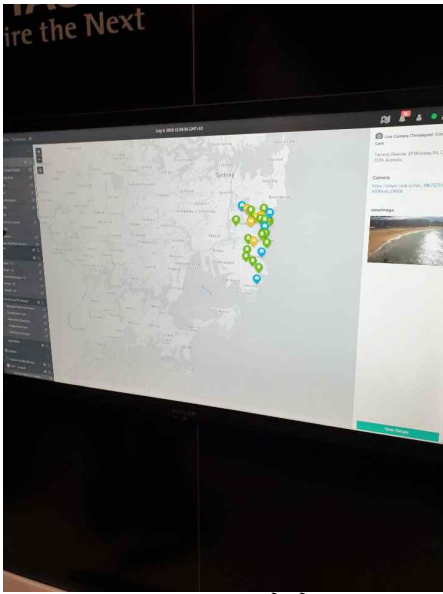
<Southbank Corporation>



<세종시와 브리즈번시 MOU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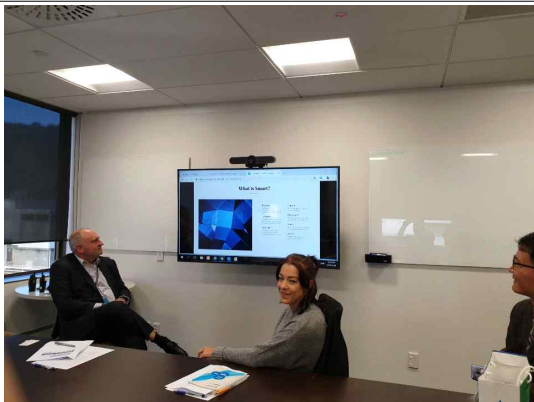
<APCS 발표>



<HITACHI 전시>



<LGNZ 발표>



<브리즈번 주차시스템>



<전쟁기념관>



<WETA>



<시티스마트 담당자 면담>